

최명길-소이현, 비정한 운명 여인 모녀로 만나다



드라마 '빨강 구두'에 출연중인 배우 소이현(왼쪽)과 최명길.

KBS 일일극 '빨강 구두'서 열연 최 "인간 욕망·열정 다 가진 역할" 소 "선배님과 연기할 수 있어 영광"

배우 최명길(59)과 소이현(36)이 비정한 운명의 굴레로 여인 모녀로 만났다.

KBS 1TV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 새 저녁일일극 '빨강 구두'를 선보였다.

최명길은 현실보다는 늘 새로움을 꿈꾸며 결국 사랑과 욕망을 찾아 떠난 여자 민희경 역을, 소이현은 민희경의 딸 김진아 역을 맡았다.

진아는 사랑하던 엄마 희경이 어느 날 밤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빠 정국도 뺑소니 사고로 죽자 열집 아줌마 옥경(경인선 분)의 수양딸로 자란다. 밝고, 명랑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내면에는 엄마를 향한 복수심을 품고 있다.

최명길은 최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내 역할은 센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갈망까지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열정이 다 보인다"며 "소이현과는 서로 눈을 봐도 잘 맞았고, 호흡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대본이다. 굉장히 대본이 깊이 있고 짜임새도 있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재미있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이현은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스토리였고, 최명길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믿고 얹혀가지고 생각했다.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연출을 맡은 박기현 PD는 "최강 빌런(악역)이 나온다. 대본에도 배우들의 연기에도 압도된다"며 "여름에



더위를 날려 버릴 수 있는 시원한 사이이다 같은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고구마 같은 답답함은 절대 없고 얼음 넣고 마시는 탄산수처럼 시원한 전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본은 '루비반지', '빠꾸기 등지', '위대한 조강지처' 등의 황순영 작가가 썼다.

'빨강 구두'에는 최명길과 소이현 외에도 박윤재, 신정운, 정유민, 선우재덕, 최영완, 반효정, 이숙, 김광영, 지상운, 하은진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이지원 감독 '비광' 크랭크인 류승룡·하지원 주연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 '미쓰백' (2018)으로 관객들을 울린 이지원 감독의 차기작 '비광'이 최근 캐스팅을 확정 짓고 촬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배급사 콘텐츠 난다긴다가 밝혔다.

<사진> '비광'은 화려하게 살던 부부가 하나의 사건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진 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가족 누아르다. 배우 류승룡, 하지원, 김시아 등이 출연하며 여름을 배경으로 석달 간 촬영할 예정이다.

메가폰을 잡은 이지원 감독은 데뷔작인 '미쓰백'으로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신인감독상, 제19회 디렉터스 컷 어워드 올해의 영화상을 받았다. 또 제31회 도쿄국제영화제의 '아시아의 미래'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기안84 웹툰 '복학왕' 연재 종료 순간 담아



MBC TV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는 만화가 기안84 <사진>가 웹툰 '복학왕' 연재를 마치는 순간을 담았다고 8일 밝혔다.

기안84는 '패션왕'부터 '복학왕'까지 주인공 우기명의 이야기를 10년간 이어왔으며 최근 종지부를 찍었다.

방송에서는 33시간에 걸쳐 '복학왕'의 마지막 회를 완성한 기안84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회 마감 앞 두고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한 기안84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아이디어에도 머리를 쥐어짜며 마감을 한다.

마침내 "마지막 컷이다"를 외친 기안84는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까지 남기며 독자들에게 진심을 전했다.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우기명 캐릭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기안84는 우기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지난 10년 연재 과정까지 뒷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오늘 밤 11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뉴트로 바람 타고... 리메이크로 듣는 과거 히트곡

가수 정인 13일 '장마' 듀엣곡 버전 발매 밴드 기프트 '기억을 걷는 시간' 발표

최근 가요계에서 '뉴트로' (신복고)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십수 년 전 히트곡이 잇따라 리메이크 버전으로 발매되고 있다.

가수 정인은 오는 13일 음악 프로젝트 '방구석 캐스팅'을 통해 자신의 히트곡 '장마'를 듀엣곡으로 편곡한 버전을 발매한다.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영준이 함께 불렀다.

영준은 2011년 발매된 원곡을 작곡하고 코러스에도 참여한 바 있다.

'장마'는 연인을 떠나보내며 흘리는 눈물을 멈추지 않는 장맛비에 비유한 발라드곡이다.

곡에 삽입된 빗소리와 애절한 보컬이 특징으로 발매 후 10년간 꾸준한 사랑받았다. 특히 장마철이면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밴드 기프트는 넬의 대표곡 '기억을 걷는 시간'을 리메이크해 지난 7일 발표했다.



밴드 기프트

과거 사이월드 미니홈피 인기 배경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사이월드 BGM 2021'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음원이다.

원곡은 2008년 발매된 넬의 정규 4집 타이틀곡으로, 다른 가수가 넬의 곡을 리메이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넬의 보컬 김종완은 "기프트만의 작법으로 편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원곡과는 또 다른 색깔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 나온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수 소유는 '사이월드 BGM 2021' 일환으로 프리스타일 'Y'를



가수 정인

새롭게 불러 지난달 29일 내놨다.

2004년 나온 원곡은 힙합 그룹 프리스타일이 객원 보컬 정희경과 함께 불렀다.

당시 사이월드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최상 위권을 휩쓸었다.

소유는 세 사람이 불렀던 이 곡을 혼자 소화했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다소 느려진 템포가 새로운 느낌을 준다.

프리스트아일은 "소유 버전의 'Y'를 수십 번 들었을 만큼 너무 만족스럽고, 이를 계기로 'Y'가 2021년 또 한 번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